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II)*

강 찬 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2.10 <又> ~ 2.22 <七月寄鐵橋>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北京대학 古籍部 소장 《日下題襟合集》¹⁾에 수록된 《洪湛軒尺牘》의 畵文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과정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총 30信 중 제10신 <又>에서 제22신 <七月寄鐵橋>까지 13개의 편지글 원문을 국내 연행 자료와 對校하고 이를 다시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이 서찰의 작성 시기는 대부분 조선 사신 洪大容²⁾이 북경에 머물렀던 1767

* 본 연구는 2019년도 원광대학교 연구 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圓光大學校 人文大學 中國學科 副教授(fromshanghai@hanmail.net)

1) 북경대학도서관 도서 분류번호: [LSB/2649]

청나라 乾隆 31년(1766) 동짓달에 三節年貢 兼 謝恩行에 子弟軍官 자격 조선의 洪大容은 乾隆 32년(1767) 음력 2월에 會試를 치르기 위해 북경에 올라와 지내던 항주 출신의 嚴誠, 陸飛, 潘庭筠 三學士를 북경 乾淨衛 일대에서 만나 지기의 인연을 맺으며 편지를 주고 받았다. 이후 삼학사와 同鄉인 청나라 朱文藻(1735-1806)가 이 편지자료를 정리하여 책 독집 《日下題襟合集》을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홍대용(1731-1783): 자는 德保, 호는 湛軒·弘之이다. 그는 18세기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연행을 다녀온 후 그 사이에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여 일기와 잡록 형태의 《湛軒燕記》와 한글본 《乙丙燕行錄》을 저술하였다.

년 음력 2월 6일에서 28일 사이이고, 제22신만 홍대용이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 청나라 문인 嚴誠³⁾에게 안부를 묻고자 같은 해 음력 7월 하순 경에 써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서찰의 형태를 살펴보면, 書箋이 10편이고 詩箋은 3편이다. 또한 서전에는 <又>, <附錄漢湖《論性書》付上>, <與鐵橋秋廬>, <又>, <與鐵橋>, <又>, <仁者之別, 必贈以言, 余何敢當? 雖然, 吾輩將生死別矣, 其可無言乎?>, <無題>, <贈鐵橋>, <七月奇鐵橋> 등의 제목이 붙어있고, 詩箋에는 <附鐵橋次金養虛韻贈湛軒詩>, <附筱飲題畫竹扇贈湛軒>, <又送湛軒> 등의 시제가 붙어있다.

편지의 발신인은 대부분 홍대용으로 되어있다. 다만 시전 형태의 제19신 <附鐵橋次金養虛韻贈湛軒詩>는 엄성이 홍대용에게 써준 것이고, 제20신 <附筱飲題畫竹扇贈湛軒>과 제21신 <又送湛軒>은 陸飛⁴⁾가 홍대용에게 써준 것이다. 추측컨대 이 시전들은 청나라 문인들과의 만남을 기리기 위해 엄성과 육비가 지어준 시구를 홍대용이 따로 적어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전을 제외한 나머지 편지의 수신인을 살펴보면 엄성에게 보낸 것이 5통이고, 潘庭筠⁵⁾에게 보낸 것이 1통이며, 엄성과 반정균 두 사람 앞으로 보낸 것이 4통이다.

이 중에서 제10신, 제13신, 제22신의 말미에는 소소한 사연을 적은 추신이 보이는데, 이는 홍대용의 《湛軒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발신 당시의 정황을 살피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 외에도 제11신에는 홍대용의 스승이자 18세기 조선의 이름 높은 성리학자인 金元行의 <論性書>와 청나라 문인의 것으로 보이는 間批가 함께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 문인 사이에 이루어진 수준 높은 학술 교류와 토론의 흔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3) 엄성(1732-1767): 자는 立庵·力闇, 호는 鐵橋, 중국 浙江省 仁和人이다. 그의 저서로는 《鐵橋集》이 전한다.

4) 육비(1719-?): 자는 起潛, 호는 筱飲, 중국 浙江省 仁和人이다. 乾隆 30년(1765) 鄉試에 解元으로 합격했다. 그는 그림과 시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로는 《筱飲齋稿》가 전한다.

5) 반정균(1742-?): 자는 蘭公, 호는 德園, 중국 浙江省 錢塘人이다. 乾隆 43년(1778)에 진사과에 급제하여 翰林에 들어갔고, 이후 陝西道監察御史를 역임한 바 있다. 그의 저서로는 《稼書堂集》이 전한다.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2.10 <又>6)

嘗見中國書，以陽明之好背朱子，比之于蚘髻客⁷⁾之于唐太宗，愚不覺失聲稱奇，以為此實片言之折獄，千古之斷案也。但世儒之依樣葫蘆，因緣幸會，際攀龍附鳳之機，售封妻蔭子之計。嗚呼！其亦卑而又卑矣。宜乎蚘髻客之不欲與噲等為伍也。⁸⁾ 雖然，曷若如伊尹⁹⁾之以其君為堯舜之君，以其民為堯舜之民哉？彼我俱成，民受其福哉？亦何必別立門戶，變換旗鼓，使之殃及生民，禍流後世也哉？若是者，亦反不如依樣因緣者之適足為其身之可鄙而已。愚以海上渺渺之身，初入中國，輒發狂言，妄是非，先輩多見其僭矣。惟以義理天下之公，人人得而言之，此乃古今之通義也。況二兄許以知己則當有諒此心，幸明賜斤教，俾開愚蒙。弟不敢自持己言，膠守先入之見也。弟等行期尚未有定，計于伊前必當趨別。弟念其分袂之苦，實欲從此逃遁，或可以自靖也。不宣

眷弟大容頓首

凡弟所陳，二兄須各示高見。早晚東歸，可以有辭于士友間也。

來時有一友贈扇畫二把，偶爾披見其‘知音’·‘知心’之語，¹⁰⁾ 不覺戚戚驚醒，若

6) 《湛軒書外集》 卷二의 < 杭傳尺牘 > 初十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7) 蚘髻客: 그의 본명은 張仲堅으로, 일설에 의하면 揚州의 상인 張季齡의 아들이라고 한다. 당 태종 李世民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으나, 후에 소리 없이 떠나 부여국의 주인이 되었다고 전한다.

8) 噲: 西漢의 개국공신인 樊噲(BC.242-BC.189)를 가리킨다. “與噲等爲伍”는 《史記·淮陰侯列傳》의 韓信과 번개의 고사에서 나왔다. 漢나라 韓信이 楚王으로 봉해졌다가 무고로 인해 낙양 땅으로 잡혀와 淮陰侯로 강봉되었는데, 어느 날 한신이 번개의 집에 갔다가 문을 나서며 “내가 번개의 무리와 동급이 된다 말인가(生乃與噲等爲伍!)”라고 하였다고 한다.

9) 伊尹(BC.1649-BC.1550): 姓은 媯이고, 氏는 尹이며, 이름은 摯이다. 伊水(지금의 河南 洛陽 伊河) 지역에서 태어났다. 夏末 商初의 정치·사상가이자 湯왕을 도와 商나라를 건국하는 데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다. 道家학파를 창시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10) 《湛軒書外集》 卷二의 < 杭傳尺牘 > 初十日條에는 柳煥德이라는 사람이 “樂崩千載尙論琴, 鳳尾空藏太古心. 試拂荷衣澗水渡, 中原應復有知音.” “海內若有知心人, 早春携歸一把來”의 시

其人有先知之術者然，信乎詩固有讖，而韓孟¹¹⁾丹篆¹²⁾之夢¹³⁾非虛語也。雖其格韻無足言，幸各以數字記其事于上，留之篋中，使後人知吾輩之交有先定也。

【역문】

일찍이 중국의 책에서 왕양명이 주자의 학설을 반대하기를 좋아한 상황을 규염객(虯髯客)과 당 태종(太宗)의 관계에 비유한 것을 보고 저는 그 기발함에 탄복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몇 마디 말로 끝낸 옥사의 결정이자 천고(千古)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유가들은 여전히 창의적인 생각 없이 흉내 내기만 하며, 요행스런 기회에만 매달리고 세력 있는 자에게 빌붙어, 아내를 높은 지위에 책봉하고 아들에게 벼슬길 열어줄 계책만 세웁니다. 아! 그러한 행위들 역시 비루하고 또 천박한 것입니다. 규염객이 번쾌(樊噲)의 무리와 동급이 되지 않고자 한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찌 이윤(伊尹)이 군주를 요임금과 순임금 같은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든 것과 같겠습니까? 피차간에 모두 이뤄졌다 한들 백성이 그 복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또 어찌서 꼭 문호를 나눠 세우고 기고를 바꿔 재앙이 백성에 미치게 하고 화가 후세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자는 도리어 종전대로 요행스런 기회에 매달린 채 자신의 비루함에 흡족해 하는 자만도 못할 뿐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보잘 것 없는 존재로서, 처음 중국에 들어와서 자주 황당한 말들을 발설하고 시비를 망령되게 하였으니, 선학들께서는 주체넘었음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의리로써 해야 한다는 것은 천하의 공리(公理)이자 사람들마다 언급했던 것으로 이는 고금에 통하는 이치입니다. 더구나 두 대형께서 저를 지기로 허락하신 데에는 응당 이런 마음이 이해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르쳐 저의 우매함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힌 부채 두 자루를 선물했다고 적고 있다.

11) 韓孟: 中唐시기의 문장가 韓愈(768-824)와 그의 벗인 孟郊(751-814)를 일컫음.

12) 丹篆: 朱砂를 사용하여 篆書로 쓴 도교 주문.

13) 《異人傳》의 “韓文公少時，夢人與丹篆一卷，令強吞之，旁一人拊掌而笑。醒覺胃中如物噎。後見孟郊，乃夢中旁笑者。” 참고.

니다. 저는 감히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거나, 기존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떠날 기일을 아직 정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앞서 반드시 나아가 이별을 알리겠습니다. 저는 이별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숨어버리고 싶어, 이따금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우 대용이 돈수합니다.

(추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두 대형께서는 각기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만간 조선으로 돌아가면 벗들 사이에 하실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신) 오셨을 때 그림이 있는 부채 두 자루를 선물한 벗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펼쳐보니 ‘지음(知音)’과 ‘지심(知心)’의 글귀가 써여 있었는데, 이를 대하니 서글픈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마치 그 분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셨던 듯합니다. 진실로 시구에서 예언한 것이 있었으니, 한유와 맹교 두 사람의 단전(丹篆)에 얽힌 꿈 이야기가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가 지어 보낸 시의 격운(格韻)은 그다지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몇 마디 말로써 그 일을 위에 기록하였으니, 상자 속에 남겨두시어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의 벗 사귀미 미리 운명 지어졌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1 <附錄漢湖¹⁴⁾《論性書》¹⁵⁾附上>

2.11.1 前蒙示諭，久益披慰。况又以先訓見及，教誡諄切，此意尤厚，不敢忘也。至于性說，蒙識何以及此？惟盛意難孤，敢布孤陋，愧汗愧汗！盖嘗聞之，性只是一箇理而已。理不能獨立，必寓于氣。有是理，便有是氣。有是氣，便有是理。雖是二物，元不相離。雖不相離，而亦不相襍。

14) 金元行(1702-1772): 조선 영조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伯春, 호는 漢湖·雲樓이다. 흥대용은 12살에 김원행의 석실서원에 들어가 그에게서 천문역학과 상수학을 배운 바 있다. 저서로는 《漢湖集》이 전한다.

15) 이 글은 《漢湖集》 卷5의 <答任同知弘紀>에 수록되어 있다.

自其不相襍而單指理，則命之曰‘本然之性’，所謂不襍，陰陽底太極也。自其不相離而兼指氣，則命之曰‘氣質之性’，所謂不離，陰陽底太極也。自本然而言之，則萬物一原。人也有健順五常，物也有健順五常，除是無此物，方無此性，才有此物，即具此性，此所謂同《中庸》“天命之性”是也。

自氣質而言之，則得其正且通者爲人，得其偏且塞者爲物。故人獨全健順五常，而物則不全，如虎狼蜂蟻之類，只有一點子明處，至于草木，則又全塞而不可見矣。此所謂‘氣異’，而孟子犬牛人之性是也。【朱子曰，“天命之性，通天下一性耳。”何相近之有？相近者，是氣質之性，孟子犬牛人性之殊者此也。又曰，“孟子言生之謂性，亦是說氣質之性。”】

【역문】

일전에 가르침을 받고 오랫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또한 선대의 교훈으로 보여주심에 가르침과 경계가 순후하고 간절하니, 선생의 이러한 뜻이 더욱 두터워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성(性)에 대한 학설에 있어서는 저의 식견이 우매하니 어찌 이러한 높은 경지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융성한 뜻을 저버리기 어려워 감히 천루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하니 부끄럽습니다! 일찍이 듣자온 바가 있는데, 성(性)은 단지 하나의 이(理)일 뿐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理)는 홀로 설 수 없어서 반드시 기(氣)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이(理)가 있으며 곧 이 기(氣)가 있게 되며, 이 ‘기(氣)’가 있으면 곧 이 ‘이(理)’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理)와 기(氣)는 비록 서로 다른 두 가지이지만, 근원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며,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도 또한 서로 뒤섞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서로 뒤섞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이(理)를 단독으로 가리켜 말하자면, 이를 일컬어 ‘본연의 성(本然之性)’이라고 합니다. 소위 서로 뒤섞여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음과 양의 태극(太極)인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氣)를 합쳐 가리켜 말하자면, 이를 이를 하여 ‘기질의 성(氣質之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음과 양의

태극(太極)인 것입니다. 그 본연(本然)으로부터 말하자면 만물은 원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도 꾸준히 오상(五常)에 순응함이 있고, 사물도 굳세게 오상(五常)에 순응함이 있어서, 이 물(物)이 없어지고 나면 이 성(性)도 없어지게 되고, 이 물(物)이 있게 되면 이 성(性)도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중용》에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이라고 말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기질(氣質)로부터 말하자면, 그 올바르고 또한 통하는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편협하고 또한 막혀 있는 것을 얻으면 물(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상(五常)에 꾸준히 순응하지만, 물(物)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호랑이, 이리, 벌, 개미 같은 무리는 단지 약간의 밝은 점만 갖고 있고, 초목의 경우에는 완전히 막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위 ‘기(氣)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또한 맹자가 말씀하신 개, 소, 사람의 성(性)입니다.【주자는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온 천하에 일성(一性)일 따름이다.”라고 하셨으니, 무슨 서로 가까운 것이 있단 말인가? 서로 가까운 것은 이 기질(氣質)에 있어서의 성(性)이니, 맹자가 개·소와 사람의 성(性)이 다르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생(生)을 성(性)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역시 기질(氣質)에 있어서의 성(性)을 일컫는 것이다.】

2.11.2 盖理無形象, 元無多寡, 亦無彼此. 若在此而賦之多, 在彼而賦之寡, 豈無形象之謂乎? 且太極者, 不過曰陰陽五行之理而已, 舍陰陽五行, 更無別討太極處. 以性與太極, 爲不同則已. 同則性只是仁義禮智之德而已, 舍仁義禮智而又安有所謂性者哉? 萬物不本于一理則已, 本于一理則亦安有人獨得之, 而物不能與者哉?

但性雖同而氣則異, 氣既異則理亦隨而不同, 雖人之最靈, 而聖凡賢愚已不免多少階級. 况于物之昏塞乎? 【古人論物之性處, 多用昏塞字. 卽此昏塞字, 而可見理無不具, 而特爲氣之所蔽而不發露.】

【역문】

www.kci.go.kr

무릇 이(理)는 형상이 없고 근원은 많고 적음이 없으며 또한 이쪽과 저쪽의

구별도 없습니다. 만약 이쪽에 있어서 그것에 부여한 것이 많고, 저쪽에 있어서 그것에 부여한 것이 적다면, 어떻게 형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태극(太極)이라는 것은 단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치를 말하는 것뿐이지만,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개념을 없애버린다면 더욱이 태극(太極)의 원리를 특별하게 토론하지 못합니다. 천성(天性)과 태극(太極)을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서로 같다고 한다면, 천성(天性)은 단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일 뿐이지만,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내버리면 또 어찌 소위 천성(天性)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만물이 하나의 이(理)에서 근원된 것이 아니라 하면 그만이지만, 만물이 하나의 이(理)에서 근원된 것이라면 또 어디에 사람만이 유독 그것을 얻는데 사물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성(性)이 비록 같다고 해도 기(氣)는 다르며, 기(氣)가 이미 다르다면 이(理)도 따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이 가장 총명하다고 하지만, 성인과 평범한 사람, 현인과 우매한 사람 사이에 이미 여러 등급으로 나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물이 어둡고 막혀 있는 경우에 있어서야 어떻게겠습니까? 【옛 사람들은 사물의 성(性)을 논하는 데에서 '혼색(昏塞)'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바로 이 '혼색(昏塞)'이라는 글자에서도 이(理)가 구비되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기(氣)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2.11.3 然其昏塞者，皆氣之所爲，而非理之本然也。惟¹⁶⁾其氣之所拘，僅通一路，而一路通處，便是¹⁷⁾全體【此則猶以一路之通者爲言，而至于植物之最塞，其于仁義禮智之稟，一似都無了者，而亦不可謂之无此理，即有此理，便只是這箇性】，如虎狼蜂蟻之仁義，正朱子所謂“仁作義不得，義作仁不得”者，而只此一點，餘外皆暗，則亦局于氣而然耳。

乃若其理則雖謂之“仁作義亦得，義作仁亦得”可也。何也? 仁亦一太極也，義亦一太極也。太極只是圓的，更無破碎，只一太極。而所乘者木之氣，則見其爲仁焉。所乘者金之氣，則見其爲義焉。

16) 《溪湖集》 卷5의 <答任同知弘紀>에서는 '雖'자로 적고 있다.

17) 《溪湖集》 卷5의 <答任同知弘紀>에서는 '見'자로 적고 있다.

但易其所乘之氣，而以之爲禮爲智，皆是物也。仁果不可以作義，義果不可以作仁乎？然則四德之爲一太極，而太極之于四德，元無不具者亦明矣。【此語似創新可駭。然程子居一有四之說，正是此意。朱子則又加密焉，曰“一行各具五行。”據是則雖不易所乘，而一行既具五行，則乘一行之氣者，獨不具五行之理乎？】

【역문】

그러나 어둡고 막혀있다는 것은 모두 기(氣)가 만들어낸 것이지, 이(理)가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가 구속되어 단지 하나의 길만 통하지만, 하나의 길이 통한 그곳이 곧 전체가 됩니다. 【이는 길 하나가 통한다는 것으로써 말한 것과 같은데, 식물이 가장 막혀있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자질 중에서 그 어느 하나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식물들이 이 이(理)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만약 이 이(理)가 있다면, 이것이 곧 성(性)인 것이다.】 예컨대, 호랑이·이리·벌·개미에게서의 인의(仁義)가 바로 주자가 말씀하신 “인(仁)은 만들어지지만 의(義)는 만들 수 없다. 의(義)는 만들어지지만 인(仁)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우매하고 무지하니, 이 또한 기(氣)에 구속되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理)에 있어서는 비록 “인(仁)이 만들어지고 또한 의(義)도 만들 수 있다. 의(義)가 만들어지고 또한 인(仁)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仁) 또한 하나의 태극(太極)이고, 의(義) 또한 하나의 태극(太極)이기 때문입니다. 태극(太極)은 그저 둥근 원의 모양이며, 더욱이 깨진 곳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개의 태극(太極)만 있기 때문에 만약 태극(太極)이 운행하는 것이 나무(木)의 기(氣)이면 그것은 곧 인(仁)이 됨을 보게 되고, 만약 태극(太極)이 운행하는 것이 쇠붙이(金)의 기(氣)이면 그것은 곧 의(義)가 됨을 봅니다.

그러나 그 운행하는 기(氣)를 변화시켜 그 기(氣)로 예(禮)와 지(智)를 만들면, 모두 물(物)이 되는 것입니다. 인(仁)은 과연 의(義)를 만들 수 없고, 의(義)는 과연 인(仁)을 만들 수 없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인의예지(仁義禮

智)의 네 덕목이 하나의 태극(太極)이 되는데, 태극(太極)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네 가지 덕목에 있어서, 원래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만들어진 말인 듯 사람을 짐짓 놀라게 한다. 그러나 정자(程子)의 '거일유사(居一有四)'의 학설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주자는 또다시 이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여, "하나의 운행 원소(一行)가 각각 다섯 가지 운행 원소(五行)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설령 운행하는 기(氣)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하나의 운행 원소가 이미 다섯 가지 운행 원소를 갖추게 되면, 하나의 운행 원소를 운행시키는 기(氣)라는 것이 단독으로 다섯 가지 운행 원소의 이(理)를 갖지 않겠는가?】

2.11.4 不然, 仁別是一太極, 義別是一太極, 是將一箇太極, 片片破碎, 而非復圓底太極矣. 是豈理耶? 苟于此有見, 性之所由同不同, 皆可以了然矣. 然則盛教所引之性, 將屬之本然乎? 屬之氣質乎? 謂之氣質則似可矣. 而朱子以爲天命之性, 是極本窮源. 通天下一性, 則恐難作氣質者矣. 如曰人物之性, 雖有偏全, 而出于天命則皆同謂之本然, 亦宜之爾, 則是又不然. 夫一偏一全, 其性之不同, 已甚矣. 既曰不同, 又豈不得爲本然耶?

于此須大着胸高着眼, 則其于論性也, 將觸處無礙, 而無復有紛紛矣. 古今諸賢論此義者甚多, 今取其最明白者, 寫在別紙, 以備裁察. 幸詳覽其中而可否之.

【漢湖先生金名元行, 洪高士之師也. 高士來中國, 先生贈以詩云, "未見秦皇萬里城, 男兒意氣負崢嶸. 漢湖一曲漁舟小, 獨宿蓑衣笑此生."】

【역문】

그렇지 않아 인(仁)이 따로 하나의 태극이고 의(義)도 따로 하나의 태극이라면, 이는 장차 하나의 태극이 조각조각 부서져 둥근 바탕을 가진 태극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형태는 하나의 태극이 조각조각 부서져 더 이상 완전한 둥근 태극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어찌된 이치입니까? 만약 이 문제에 대해 견해가 있다면, 성(性)이 말미암은 것이 같은지 다른지 모두 이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르침 속에 거론하셨던 성(性)은 본연(本然)에 속합니까

아니면 기질(氣質)에 속합니까? 그것을 기질이라고 일컫는다면 옳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자(朱子)는 ‘천명지성(天命之性)’이라고 여겼으니 이는 궁극적인 근본입니다. 온 천하가 ‘일성(一性)’이라면 아마도 기질이란 것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과 물(物)의 성(性)에 비록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다 해도 천명(天命)에서 나왔다고 말할 것 같으면, 마땅히 모두 함께 ‘본연(本然)’이라고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치우치고 하나는 온전하니, 그 성(性)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이미 성(性)이 같지 않다고 말해 놓고서, 왜 또 ‘본연’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토론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을 크게 하고 안목을 높이게 되면, 장차 성(性)을 논함에 있어서 또한 접하는 것마다 막힘이 없게 되어 다시금 분분한 논쟁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금(古今)의 많은 현인들 중에 이 의리(義理)를 논술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명백한 말씀들을 선택하여 별지에 써서 자세히 살펴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오니, 그 안의 이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澩湖) 선생은 성함이 김원행으로, 홍고사(洪高士, 홍대용을 가리킴)의 스승이다. 홍고사가 중국에 가게 되자, 선생께서는 시를 지어 주며 “진시황 만리성을 보지 않고서는, 남아 의기가 드높아지지 못할 진데. 미호의 한 구비 작은 고깃배에 올라, 홀로 도룡이 두르니 이런 인생 유희기만 하구나.”라고 하셨다.】

2.12 < 與鐵橋秋厓 > 18)

夜迴, 僉履何如. 昨承覆音, 深感眷誼, 自顧賤陋, 何以得此哉. 朋友等之人倫, 顧不重歟! 天地爲一大父母, 同胞何間于華夷哉? 兩兄既相許以知己, 弟亦當抗顏而自處以知己也. 但不知交修輔益之義而徒出于區區情愛之感, 則是婦之仁而豕之交也. 此弟之所大懼而亦欲一叩于二兄也.

昨見蘭兄心氣似弱, 故書中不敢爲一字, 惜別語以戚我友心. 使回, 又聞傷懷

18) 《湛軒書外集》 卷二 < 杭傳尺牘 >의 ‘初六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如昨。若是則吾輩邂逅，不是良緣，乃前生之冤業也。且承書中有夜不能寐之教，此是彼此通患。雖然，吾輩之事役雖不同，其離親遠遊一也。其所以慎護眠食，不敢忘惟憂之思者，何以異哉！切望猛省而善攝焉。且科場得失，雖有定命，不專心致志則亦未然也。

今春闈不遠，政宜攝心潛養，待時而動也。忽此意外瘴癘，應酬煩于外，心緒亂于中，不亦聞¹⁹⁾乎？顧科宦之榮，不足爲吾兄之能事，弟之期望于二兄者，亦不在此也。雖然，親庭之望，門戶之計，數千里跋涉，準的在此，亦不可謂小事也。蘭元年尤少，氣質亦似清脆，尤切。幸自愛。方隨進貢入闈。忙草。不宣

弟大容拜

【역문】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답신을 받고 벼을 그리워하는 뜻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봄에 미친한 인물이 보답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벼 사قم은 인간의 윤리이니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천지가 하나의 큰 부모이니 형제에 어찌 중화와 오랑캐 간의 간격이 있겠습니까? 두 대형께서 이미 지기로 허락하셨으니, 저는 마땅히 낫을 들어 지기로서 자처하겠지만, 다만 서로 고쳐 주고 유익함을 보완해 주는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구구한 정과 사랑의 감정만 내세우니, 아낙네의 어리석은 태도와 돼지 같은 사قم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바이고, 또한 두 대형께 한번 머리 조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난형(반정균)을 뵈니 심기가 허약해진 듯하여, 편지 가운데 감히 한 글자 이별의 말을 적어 벼를 상심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왔는데, 또 어제처럼 상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만남이 좋은 인연이 아니면 전생의 업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편지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셨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우리 서로가 겪는 괴로운 심경입니다. 그러니

19) '悶'자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부모 곁을 떠나 객지 생활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잠자리와 음식을 조심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걱정하심을 잊지 않음이니,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심신을 잘 다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급제하고 낙방하는 것은 비록 정해진 운수가 있겠으나, 전심하여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올 봄에 있을 회시가 멀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혀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혼란스러운 일을 맞아 밖으로는 번거롭게 응대하고 안으로는 마음을 어지럽히니, 또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건대, 과환의 영예로움은 대형들의 능사가 아닐 것이며, 제가 두 대형께 바라는 것도 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바람과 문호의 관심이 수천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에 겨냥되어 있으니, 또한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난형은 나이가 더욱 어리고 기질도 청취한 듯하여, 걱정스런 마음이 더욱 절절합니다. 모쪼록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공하기 위해 입궐하려고 합니다. 바빠 적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우 홍대용이 절합니다.

2.13 <又>20)

容頓首上兩兄足下:

昨承辱覆, 感荷感荷. 羅生儘是奇士, 志尙高爽, 不特才思之巧而已. 惜其詩文無一記存以傳大方, 甚歎甚歎. 當其同事渾儀, 年已七十餘矣. 儀成而卽病死, 說者“以渾儀爲之崇”, 可見其良工之苦心矣. 明當就敘. 不備

謹上鐵橋秋廡僉座下

弟大容頓首

告: 蘭兄付上扇書, 而舍叔臨行撓撓, 且患阿睹, 未克有書, 爲此替布.

20) 《湛軒書外集》 卷三 <杭傳尺牘>의 二十五日條에 수록.

【역문】

홍대용이 돈수하고 두 대형께 올립니다.

어제 답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씨(羅景績을 가리킴)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뜻이 또한 높고 맑으니 그저 재주와 생각만이 교묘한 것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시문 가운데 기록 보존되어 널리 전하는 것이 없으니, 매우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함께 혼천의를 작업할 당시에 나이가 이미 70여 세였습니다. 혼천의가 완성되자 곧바로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천의를 만드는 일로써 그의 숭고함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니, 뛰어난 장인의 고달픈 심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삼가 철교 추루 대형께 올립니다.

아우 홍대용이 돈수합니다.

(추신) 아뢰입니다. 난형(반정균)께서 부채와 글씨를 보내 주셨으나, 숙부께서는 귀국을 앞두고 어수선한 가운데 눈병까지 앓게 되어 편지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글로 대신합니다.

2.14 <與鐵橋>21)

愚兄大容頓首上力闇賢弟足下:

力闇之才之高, 學之邃, 乃吾之老師也. 力闇特以我一歲之長, 乃欲相處以兄. 累辭而不敢當, 則力闇反慚悶如不自容. 蓋其愛之深, 故欲其親之至也, 亦豈敢終以爲辭乎? 從此而力闇吾弟也. 吾弟其勉之, 恢德量勤問學, 無有作僞以飭浮藻, 無放細行以累大德. 錫爾兄以光, 我其受之, 以永有辭于後人. 不備

謹上鐵橋賢弟足下

21) 《湛軒書外集》 卷3 <杭傳尺牘>의 二十七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愚兄大容頓首

迫于嚴命，乃發此例，僭妄之罪，無以自恕。

【역문】

우형 홍대용이 돈수하고 역암(엄성) 현제에게 올립니다.

역암(엄성)은 재주가 높고 학문이 깊으니, 나의 스승이 됩니다. 역암은 내가 나이 한 살 많다고 하여 서로 형의 예로 대접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사양하여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니, 역암이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민망히 여기는 것이 마치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는 듯했습니다. 깊이 사모하여 지극히 친하고자 했던 것인데, 어찌 감히 끝까지 사양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역암은 나의 아우가 됩니다. 아우께서는 부디 더욱 힘쓰십시오! 덕량을 크게 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할 것이며, 거짓과 꺾치레로 꾸미지 말고, 작은 일이라 팽개쳐서 큰 덕을 쌓음에 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형이 되는 영광을 준다면 내가 장차 받을 것이니, 이로써 길이 훗사람에게 칭송되는 말이 있게 할 것입니다.

(추신) 엄한 명에 내몰려 이런 사례를 들기는 하였으나, 경망스러움을 범한 죄에 제 스스로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2.15 < 又 > 22)

愚兄大容啓力闡賢弟：

從此別矣。至²³⁾信亦不可以復通矣。如之何勿悲？今日始擬抽暇趨別。昨承陸老兄書意，始見之。五內驚隱，以爲我兄之薄情，何乃至此也？少間方頓覺其厚之至、悲之切而斷于處事也。于是乎下簾獨坐，淚汪汪下。前則責蘭兄以過矣，今我亦

22) 《湛軒書外集》 卷三 < 杭傳尺牘 >의 二十九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23) '書'자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不自禁焉，奈何!

朝爲兄弟，暮爲途人，此市井輕薄兒事也，容所深恥焉。若吾輩一別，終相忘焉。縱不相忘，只牽于情思而已，則亦曷足貴焉？請與賢弟勉之。有一事欲面告者，今則路已斷矣，敬以畧陳。竊謂賢弟之德器，長于容受而或短于含忍，好善固無方而疾惡亦或已甚。望須以吾言更加密省，有則改之，無則加勉。萬萬惟祝 德日新，享百福，更有何說？

愚兄大容拔涕上力闡賢弟知己

【역문】

우형 홍대용이 역암(엄성) 현제에게 올립니다.

이제 이별입니다. 서신도 다시 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슬프지 않겠습니까? 오늘에야 비로소 틈을 내어 이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육형(육비)의 편지를 받고는 비로소 읽어보았습니다. 온 몸이 떨리면서, 대형의 박정함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사이에 그 돈독함이 지극하고 슬픔이 간절하였어도, 일을 처리함에 단호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름을 내려놓고 홀로 앉아있으니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일전에 반형(반정균)이 슬픔의 표현이 지나치다고 책망하였는데, 이제 제가 서글픔을 참을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아침에 형제의 인연을 맺었다가 저녁에 행인처럼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은 시정의 경박한 풍습이고, 제가 깊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 이별하게 되면 마침내 서로를 잊겠지요. 설령 서로 잊지 않는다고 해도 단지 정에 얽매인 것일 뿐이라면, 또한 어찌 고귀하다 하겠습니까? 현재와 함께 면려하기를 청합니다. 만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제 만날 길이 끊어져 버렸으니, 삼가 대략 적습니다. 현재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면, 받아들이는 것에는 뛰어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인내하는 데는 부족하고, 선한 것을 좋아함은 진실로 끝이 없지만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도 너무 심합니

다. 바라건대 반드시 제 말을 좇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 고치고 없다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덕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많은 복을 누리시길 축원할 따름입니다.

우형 홍대용이 눈물을 훔치며 진정한 벗인 역암 현제에게 올립니다.

2.16 < 仁者之別, 必贈以言, 余何敢當? 雖然, 吾輩將生死別矣, 其可無言乎? >24)

大上修己而安人, 其次善道而立教, 最下者著書而圖不朽, 外此者求利達而已. 苟求利達而已, 亦將何所不至哉? 仕有時乎爲榮, 亦有時乎爲恥, 立乎人之本朝而不志于三代之禮樂, 是爲容悅也, 是爲富且貴也. 此而不知耻, 其難與言矣. 有高才能文章而無德以將之, 或贏得薄倖名, 或陷爲輕薄子, 若是乎才不可恃而德不可緩也. 非寡欲無以養心, 非威重無以善學, 任重而道遠. 凡我同志, 奈何不敬? 嗚呼! 善惡萌于中而吉凶著于外, 如欲進德而修業, 盖亦反求諸己而已矣.

【역문】

가장 훌륭하기로는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함이며, 그 다음으로 는 도를 다스려 가르침을 세우는 것이며, 마지막이 되는 것은 저술하여 불후의 명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 외에는 이익과 영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구차히 이익과 영달만을 구한다면, 또한 장차 무슨 것인들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벼슬이란 때로는 영예로운 것이 될 수 있겠으나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조정에 몸담고서 삼대(三代)의 예악(禮樂)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얼굴빛을 환하게 하고 부귀함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렇고서 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이런 사람과는 함께 담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

24) 《湛軒書外集》 卷三 < 杭傳尺牘 >의 二十三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 문장을 잘 짓는다하여도 덕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요행스러운 명성을 얻을 수 있겠으나 때로는 경박한 사람으로 타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주란 믿을 것이 못 되고 덕을 닦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심성을 닦을 수 없고, 위엄과 진중함이 없이는 학문을 잘 할 수 없으니, 임무는 막중하고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우리가 어찌 이러한 가르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선악은 마음 가운데 싹트고 길흉은 밖으로 드러나는 법이니, 덕을 증진하고 학업을 닦고자 한다면 아마도 또한 돌이켜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따름입니다.

2.17 <無題>25)

甚矣, 鐵橋子之好學也, 聞一善言如嗜欲. 然余將東歸, 與二君別, 各以言贈之, 此卽與秋庫言也. 鐵橋子以其語頗切直, 請余更書一幅, 將以兼取之焉, 其可謂嗜欲也已. 雖然, 此陳談也. 夫人皆能言, 病不能行耳. 好之而不能行之, 惡在其好之也? 是以好之而能行之, 其好之也益切, 好之也益切, 則其行之也益力. 如是則天下之言善言者, 皆將輕千里而至矣. 其勉之哉.

丙戌仲春, 海東洪大容臨行潦草

【역문】

대단하구려, 철교(엄성) 대형께서 학문 닦기를 좋아함이어! 한 마디 좋은 말 듣기를 마치 욕심 부리듯 하십니다. 제가 이제 조선 땅으로 돌아가게 됨에 두 대형과 작별하며 각각 심득한 말씀을 올렸는데, 이는 바로 추루(반정균) 대형께 해드렸던 말이었습니다. 철교 대형께서는 그 말이 매우 간절하고 솔직하다고 하여 제게 다시 글씨 한 폭을 써주길 청하여 장차 함께 갖고자 하셨으니,

그야말로 욕심 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래도 이것은 진부한 얘기이지요. 무릇 사람들이 말은 잘 해도 실천하지 못함을 걱정할 따름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능히 실천하지 못하면 어찌 그 가르침을 좋아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좋아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면 더욱 부지런히 실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천하의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천리를 멀다 않고 몰려 올 것입니다. 부디 더욱 힘쓰십시오.

병술 년 중춘에 해동 홍대용이 길 떠나기에 앞서 대략 적습니다.

2.18 <贈鐵橋>26)

維杭有山，可採可茹，維杭有水，可濯可漁。文武之道，布在方冊，可卷而舒。子弟從之，可觀厥成，優哉游哉，可以終吾生。

夫心一則專，專則靜，靜則明生焉。明生焉而物乃照矣。止水明鑑，體之立也。開物成務，用之達也。專于體者，佛氏之逃空也。專于用者，俗儒之趨利也。朱子，後孔子也，微夫子，吾誰與歸？雖然，依樣苟同者佞也，彊意立異者賊也。

丙戌仲春，東海歸客奉處巖鐵橋先生

【역문】

항주 땅에는 산이 있어서 나물도 캐어 먹을 수 있고, 항주 땅에는 물이 있어서 몸도 씻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네. 문왕과 무왕의 도는 여러 책속에 널리 기록되어 있어, 두루마리로 할 수도 있고 펼쳐 볼 수도 있네. 자제들이 이를 좇으니 그 성취를 볼 수 있으며, 유유자적 노닐며 내 생을 마칠 수 있으리라.

무릇 마음이 한결 같으면 전일하고, 전일하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밝음이

26) 《湛軒書外集》 卷三 <杭傳尺牘>의 二十三日條에 수록.

생기는 것입니다. 밝음이 생기면 만물이 이에 비취집니다. 고요한 물과 밝은 거울은 ‘체(體)’가 세워진 것이고, 만물을 열어 일을 성취함은 ‘용(用)’이 도달한 것입니다. ‘체’에만 얽매이는 것은 불교에서 ‘공(空)’으로 달아나는 것이고, ‘용’에만 얽매이는 것은 속유들이 명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자는 후세의 공자입니다. 주자 선생 말고 제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걸모양에 의거하여 구차히 함께 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뜻을 억지로 부리어 기이한 것을 세우는 자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병술(1766)년 중춘, 해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가 철교 엄 선생께 올립니다.

2.19 <附鐵橋次金養虛²⁷⁾韻贈湛軒詩> 28)

驚心十日返行旌，烈士遺墟此暫經。官道漸看新柳綠，旅懷同憶故山青。從今燕雁成千里，終古參商恨兩星。縱說神州無隔間，離憂如醉日沈冥。

【역문】

놀란 마음 열흘 만에 귀로에 오르다가
 열사의 유허를 여기서 잠깐 지나쳐가네
 관가의 길 새 버들이 점점 푸르러
 나그네 마음에도 고향 산천 떠오르네
 이제 연경 소식은 천리 길을 이루니
 만고에 서로 못 보는 참상에 두 별 뒹을 한탄하노라
 비록 중국 땅과 간격이 없다한들

27) 金在行(1718-?)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平中, 호는 養虛, 본관은 安東이다. 군관자제 신분으로 흥대용과 함께 연행하여 청나라 三學士와 교류한 바 있다. (고려대 소장 《中朝學士書翰》 참고.)

28) 《湛軒書外集》 卷二 <杭傳尺牘>의 初七日條에 수록.

이별의 근심은 취한 듯 날로 침울하기만 하네

2.20 <附筱飲²⁹⁾題畫竹扇贈湛軒>³⁰⁾

得雨益斐然, 着雪更清絕. 到老不改柯, 中虛見眞節.

【역문】

비를 맞으니 더욱 빛나고
눈이 내려왔으니 다시 청아해 지는구나
늙어도 푸른 가지 바꾸지 않으며
빈 가지 속 높은 절개 드러내리라

2.21 <又送湛軒>³¹⁾

參商萬古總悠悠, 欲語先看制淚流. 此去著書應不朽, 莫教容易寫離愁.

【역문】

삼상의 별들은 만고에 항상 유유한데
이별을 말하려다 먼저 눈물을 참아내네
이제 돌아가 글로 적으면 영원히 남을 테니

29) 청나라 三學士의 한 명인 陸飛(1719-?)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起潛, 호는 筱飲, 중국 浙江省 仁和人이다. 乾隆 30년(1765) 鄉試에 解元으로 합격했다. 그는 그림과 시에 조예가 깊었다고 하며, 저작으로 《筱飲齋稿》가 있다.

30) 《湛軒書外集》 卷二 <杭傳尺牘>의 二十八日條에 수록.

31) 《湛軒書外集》 卷二 <杭傳尺牘>의 二十八日條에 수록.

이별의 서글픔일랑 쉽게 쓰지 마소서

2.22 <七月寄鐵橋>³²⁾

力闔足下

相別已五月于茲矣. 向來種種悲歡, 殆若一場夢事. 人生離合, 從古何限? 但其會合之跡, 未聞有如吾輩之奇者也, 離索之懷, 未聞有如吾輩之苦者也. 然則安得不使我恂恂蘊結, 愈久而愈切耶?

容于歸路, 嫩柳紅杏, 非復去時光景. 乃憑長城, 笑秦皇之築怨, 撫虎石,³³⁾ 弔李廣之數奇,³⁴⁾ 登首陽, 挹伯夷之清風, 入巫閭,³⁵⁾ 仰賀欽³⁶⁾之高節. 其感古傷今, 一切可喜可悲之蹟, 何處而不思吾力闔也? 萬里嗣音, 千古所無, 苟其不斷, 豈非奇絕. 若或一斷, 勢不可復續. 此其情理之苦, 定當十倍于分袂之懷矣. 如之何, 如之何! 餘語畧在去筱飲秋廬札中, 姑不疊陳. 惟日望金玉之貺使我驚倒而叫絕也. 不宣

謹上力闔賢弟足下

丙戌孟秋下澣, 愚兄洪大容頓首

令尊先生前, 望呼名請安.

【此海東洪湛軒札, 于十一月廿四日到.】

32) 《湛軒書外集》 卷一 <與嚴鐵橋誠書>에 일부 내용이 수록.

33) 虎石: 지금의 중국 遼寧省 興城市에 설치된 역참인 東關驛의 石牌 옆쪽에 놓여있던 호랑이 석상을 가리킨다. (石興奎, <讓古驛道文化煥發生機>, 《葫蘆島新聞網》, 2018년 11월 19일 자 보도 참조.) 이곳은 조선 사행단이 북경을 오가던 주요 행로의 하나이기도 하다.

34) 西漢시대의 명장이었던 李廣(?-BC.119)이 사냥을 나갔다가 右北平의 바위를 호랑이로 보고서 활을 쏘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35) 巫閭山: 지금의 遼寧省 北鎮市 부근의 閭山을 가리킨다. 옛 명칭은 微閭, 無慮山이며, 醫巫閭山 또는 줄여서 閭山이라고 부른다.

36) 賀欽(1437-1510): 명나라 문인으로, 자는 克恭 또는 醫閭山人이다. 성화 연간에 진사과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버리고, 당대 사상가였던 陳獻章(1428-1500)을 좇아 학문에 전념하였다. 저술로는 《醫閭集》가 있다.

【역문】

역암 대형께 올립니다.

서로 작별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갖가지 슬프고 기뻐던 일들이 마치 꿈결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 헤어짐이 예부터 어찌 끝이 있었습니까? 다만 그 만남의 발자취들이 우리와 같이 기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헤어져 쓸쓸한 심정도 우리와 같이 괴로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의 망연자실 맺힌 서글픔이 점점 더 간절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가에는 싹 피운 버들과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었는데, 더 이상 중국 땅으로 들어갈 때의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만리장성에 기대어 서서 그 옛날 진시황이 원한을 성처럼 쌓아놓았음을 비웃었고, 범바위(虎石)를 어루만지면서 이광(李廣)의 기박한 운명을 조상하였습니다. 수양산(首陽山)에 올라가서는 백이(伯夷)의 맑은 기풍을 받아들이고, 무려산(巫閭山)에 들어가서는 하흠(賀欽)의 높은 절개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옛일을 생각하니 모두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자취들이니, 그 어디에선들 역암 대형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만 리 떨어진 곳에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천고에 없는 일입니다. 만일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면 어찌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마는, 행여 한 번 끊긴다면 다시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워하는 괴로움은 정히 작별할 당시의 심정보다도 열배나 더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나머지 말들은 소음 대형과 추루 대형께 드리는 서찰에서는 생략하고, 잠시 거듭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날마다 금옥 같이 소중한 편지가 전해 와 저를 놀라 소스라치게 하길 바랄 뿐입니다. 줄입니다.

삼가 역암(엄성) 현재께 올립니다.

병술(1766)년 칠월 하순에 홍대용이 돈수합니다.

(추신) 부친께도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것은 해동 홍대용의 서찰로 십일 월 이십사 일에 도착하였다.】

〈 參考文獻 〉

- (清)羅以智 再抄, (朝鮮)洪大容·(清)嚴誠·陸飛 撰, 《日下題襟合集》, 北京대학 소장본.
- (朝鮮)金元行 撰, 《漢湖集》, 《韓國文集叢刊》 220책, 民族文化推進黨, 1998.
- (朝鮮)李德懋 撰,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259책, 民族文化推進黨, 2000.
- (朝鮮)許筠 著, 윤남한 譯, 《(국역)연행록선집1-朝天記》, 民族文化推進黨, 1976.
- (朝鮮)洪大容 지음, 김태준·박성준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 (朝鮮)洪大容 지음, 조규익·장경남·최인환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 (朝鮮)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248책, 民族文化推進黨, 2000.
- 編者 未詳, 《燕杭詩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1933.
- 김태준 編, 《乙丙燕行錄(영인해설)》,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 劉婧, <18世紀中韓文人交流詩文集《日下題襟合集》與《日下題襟集》的傳抄本>, 《溫州大學學報》 29輯, 2016.
- 劉婧, 《日下題襟集》, 上海古籍出版社, 2014.
- 박현규, <朝鮮·淸朝人の 燕京 交遊集 - 《日下題襟合集》의 발굴과 소개>, 《韓國漢文學研究》 23집, 1999.
- 박현규, <《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 《韓國漢文學研究》 47집, 2011.
- 拙稿, <《中朝學士書翰》의 자료 가치에 대한 管見>, 《중국어문논총》 42집, 2009.
- 拙稿, <《中朝學士書翰》脫草 원문 및 校釋>, 《중국어문논총》 41집, 2009.
- 拙稿, <북경대학 소장본 《洪湛軒尺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5집, 2010.
- 拙稿,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I)>, 《중국어학논총》 66집, 2019.
- 허경진·천금매, <홍대용 집안에서 편집한 《燕杭詩牘》>, 《洌上古典研究會》 27집, 2008.

< Abstract >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in Peking University
 — Its Deciphered Text and Annotated Translation(II)

Kang, Chansoo

This is the second paper in a series of research courses that examine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kept in the Rare Books Collection Division of Peking University library, comparing 13 letters—from the tenth to the 22nd letter—with the domestic literary collection and translating it back into Korean.

Most of these letters were written in February 1766 when the Chosun's envoy, Hong Dae-yong(洪大容), stayed in Beijing, and only the 22nd letter was written by Hong Dae-yong in late July of the same year to ask his regards to a scholar of the Qing Dynasty, Yan Cheng(嚴誠), after he returned to Chosu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se letters and Hong Dae-yong's *DamHeonSeo* (《湛軒書》), a collection of documents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I investigate and revea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ooks, as well as an unknown story not written in *DamHeonSeo* (《湛軒書》), such as the postscript at the end of the 10th and 13th letters.

In addition, the 11th letter includes *NonSeongSeo* (《論性書》) written by Chosun's Kim Won-haeng(金元行) and annotations written by a scholar of Qing Dynasty. On the basis of these contents, I examine the traces of high-level academic exchanges and discussions made between scholars of both Dynasties.

Key words: *HongDamHeon Cheokdok*, *Ilha Jegeum Habjip*, Hong Daeyong, Qing Dynasty scholar, envoy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10. 31	2019. 11. 11	2019. 11. 16	2019. 11. 25	2019. 12. 31

